

국가교통DB 전자지도 완성

국가교통DB구축 1단계 사업 경과보고 >>>

건설교통부가 5년간에 걸쳐 전국의 육상·항공·해상·물류 등 전 부문의 교통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국가 교통데이터베이스(DB)와 이를 기반으로 한 입체전자지도인 전국 단위 교통주제도를 완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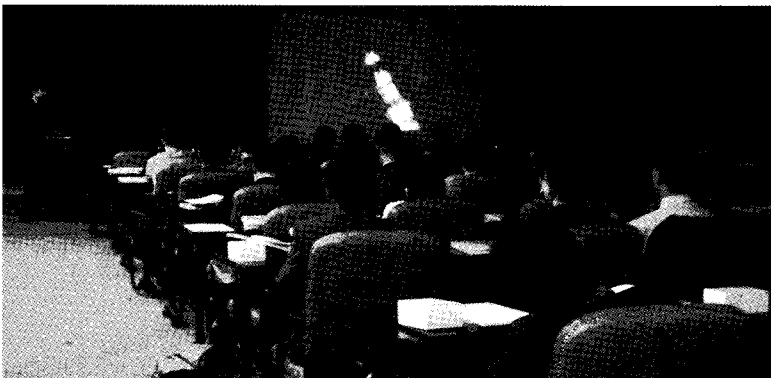
건설교통부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319억원을 들여 추진한 국가교통DB 구축 1단계 사업에 대한 경과보고회를 가졌다.

교통기초자료 조사 및 DB기반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 국가교통DB구축 1단계사업에서는 도로·철도·항공·해상·물류 등 전분야의 조사·분석자료, 교통통계, 문헌정보, 교통주제도 및 교통분석용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명실상부한 전국단위의 교통DB기반이 구축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교통DB를 토대로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및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등 각종 교통계획과 정책입안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등의 다양한 분석자료로도 이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다양한 교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윈스톱 서비스에 의한 인력 및 시간의 절감 등으로 연간 약 3조400억여원의 간접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가 교통DB는 △도로·철도·해상·항공 부문별 여객·화물 통행실태와 교통량 △백화점·사무실·공공청사 등 주요시설별 차량·여객 통행량 △대중교통 이용실태 △도로·철도·터미널과 같은 교통시설물의 속성 등 교통과 관련한 전 부문의 데이터를 통합 구축한 것이다. 건교부는 이들 조사결과를 242종에 이르는 교통관련 통계와 6503종에 이르는 각종 문헌정보 DB로 구축했다.



그러나 시행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 담당인원의 잦은 교체와 동일한 시점에 일괄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교통DB 유관기관 간 종합적인 교통DB 공유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점이 제시됐다.

따라서 올해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실시되는 2단계 사업은 1단계에서 표면화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교통계획 및 평가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교통관련 조사 비용의

{미·니·인·터·뷰}

‘국가교통 DB구축사업의 총지휘자 - 건교부 김광재 과장’

김광재 건설교통부 수송물류정책과장은 국가교통DB구축사업 초기단계부터 지금까지 담당해온 실무자다. 교통개발연구원 담당인원의 잦은 교체로 사업진척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김과장의 끈기있는 노력과 추진력으로 지금의 사업결실을 보게 됐다.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김과장의 애정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김과장으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평가와 2단계 추진사업에 대해 들어봤다.



건설교통부 수송물류정책과
김 광 재 과장

▲ 국가교통DB구축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선 교통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립하지 못했던 국가교통 DB를 지난 5년간에 걸쳐 우리가 일단 그 토대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직까지는 이 조사 자체에 대한 신뢰도나 정확성에 대해서도 여러 전문가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나 앞으로의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정부의 정책개발에 적극 활용하는 등 중복되는 조사를 차단해 예산을 절감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 2차년도 계획에서 물류정책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물류와 교통은 양면관계가 있다. 따라서 1단계 국가교통DB 구축도 물동량 조사와 병행했다. 물류부문에 있어도 1차에는 화물통행량 정도의 조사였지만 앞으로는 화물터미널 등 물류시설에 대한 처리현황, 물동량에 대한 흐름 등 원활한 물류정책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 내용을 많이 보완할 계획이다.

절감 및 관련분야 정보화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자료조사·수집체계 첨단화를 통한 정확성 향상 및 비용을 절감하고 자료의 다양성과 범위 품질의 완결성을 증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DB구축 및 인터넷 서비스를 구현하고 자료의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확대 및 자료배부처를 다양화 한다는 세무적인 목표를 세웠다.

사업추진 방향은 2006년에 전국적으로 교통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정확한 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조사방법과 조세체계를 정비 보완하고 2005년에 사전 예비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통시설물, 교통통계/문헌DB, 교통정책자료, 교통기술DB를 매년 보완하고 2004년 안에 1단계사업 결과물을 토대로 한 정책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부분별 추진방향에 따라 교통 종합정보망을 구축, 자료공유 협의체를 구성, 각종 조사분석 자료의 표준화 및 홍보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